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1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7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논란

제주지역 35개 사업 대상... 도, “지역특성 사업은 지속”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통합·변경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통보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의 경우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하라는 것이며, 제주의 경우 35개 사업이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가 폐지권고 및 미이행 시 교부세 삭감 등의 패널티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 지역 정비대상 중 폐지대상은 장수수당,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장기요양 보험료 등 3가지이고, 32개 사업은 변경 또는 통폐합 대상”이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최근 언

론보도에 의해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라 문제가 없으며, 장수수당의 경우 장수의 섬 이미지에 따른 지역특성 반영 사업이므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복지·제주시민단체(총 25개 단체)’가 정비방안 규탄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이 축소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후퇴가 막약판화하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사회적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복지사업 정비추진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제9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난 1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제9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대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 결승전(전남:충남) 경기 모습.



▲ 나눔과 기부 문화를 알리는 2015 제주 나눔대축제가 지난달 9일 제주시 탐동에 위치한 이마트 제주점 주차장 일대에서 열렸다.

2015 제주 나눔대축제 ‘성황’

도민·관광객 6,000명 참여 ... 기부문화 기여자 표창

나눔과 기부 문화를 알리는 2015 제주 나눔대축제가 지난 9일 탐동에 위치한 이마트 제주점 일원에서 열려, 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성원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나눔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축제에는 총 40여개의 사회복지시설·단체, 기업, 자생조직 등이 ‘나눔과 기부’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및 홍보부스 등을 운영했고, 약 6,000여명의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다양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알아보고, 다채로운 체험과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축제에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나눔미’, 함께 비빔밥 만들기 ‘삼촌 밥 먹영감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나눔상자 만들기’ 등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기부물품 전달식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온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도 수여했다. 기부물품 전달 단체는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KT&G제주고객본부 △KT제주고객본부 △제주발전연구원이며, 표창 수상 유공자 명단은 △강성오 사무국장(제주구세군기초푸드뱅크) △장승남 대표(아라온해수사우나) △오순열 봉사자(아름다운가게) △황복자 봉사자(아름다운가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다.

☞ 관련화보 4면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운영
내용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교육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
방법

- 상담콜 또는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제시됩니다.
- 상담콜 : TEL. 064)702-3782 (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관용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강병삼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고현수 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미 소장(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소영(인권전문강사)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함께 지켜나갑니다.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전라남도·영도구·남양주시·거창군 대상 영예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컨벤션 홀 등 제주도 일원에서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시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국대회는 '새로운 출발, 행복을 창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회보장급여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 환경 변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확대 등을 위한 정보공유 및 논의의 시간 등이 마련돼 관심이 모아졌다.

첫날 대회에서는 지역사

회복지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 총33개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광역지자체부문에서는 전라남도가 대상, 기초자치단체부문에는 부산영도구, 경기남양주시, 경남거창군이 대상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부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비롯한 12개 시군구가 수상했으며, 제주시는 11개



▲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가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시군구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대회에서는 이봉주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의 기조 및 정책강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광주광역시 강위원 노인복지관장의 특강과 제주 꽃자왈에 대한 특강도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서귀포지역 복지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

‘서귀포시 지역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정책 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규현 의원) 주최,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수희) 주관으로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사진〉

토론회에는 강호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의 ‘UDHR(세계인권선언)이 보장되는 서귀포시 만들 수 있을까’ 주제발표와 제주복지공동체포럼 회원 의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에는 일반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함께 토론했다. 토론회 의미는 깊었다는 평을 받았다.

현장 종사자들의 여러 의견들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부족,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소년 상담 바우처 활성화 등의 다양한 복지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편, 토론회에 현을생 서귀포시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공무원도 참석해 제안정책들을 수렴했다.

11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사)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특별강연, 화합한마당 •칭찬합시다 홍보캠페인 전개 •각단체 홍보부스 운영 (에너지 절약, 육아정보마당제공)	3일(화) 14시~1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744-4739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2015 건강백세운동교실 제주지역 발표대회	•식전행사, 축하공연, 개회식 건강백세운동교실 발표	3일(화) 13시~17시(5시간) 제주학생문화원	740-121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 건강증진과 비만줄이기 정책토론회	•유·초·중·고 학생의 건강증진과 비만줄이기 위한 전문가 및 도민 토론 •단위학교 건강증진 사업방향 •제주 아동 중장기 건강증진 방안	6일(금) 14시~18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710-049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제주재가노인복지협회	제25회 전국재가노인 복지대회	•개회식, 유공자 표창 •세미나, 제주지역 문화탐방	11일(수)~13일(금) 3일간 제주 한화콘도	794-0361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	이웃사랑바자회 '사랑나눔 할인장터'	•도민 및 지역의 업체에서 물품을 기부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바자회 행사	13일(금)~14일(토)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755-9810
도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유아축구대회	•개회식, 봉봉카 릴레이 경기, 유아축구팀 경기, 장애물 이어달리기	14일(토) 제주한라체육관	746-2211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행사	•근로장애인 교류의장 •장애인생산물 전시 및 판매	18일(금) 10시~17시(예정) 한라체육관 시계탑 앞광장	794-627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KT제주고객본부=쌀 1,200kg ▲강정란남=식용유 8개 ▲국제라이온스협회=쌀 1,000kg, 간장등= 497개 ▲금강수산유통=수산물 20kg ▲금강축산유통=돈육 20kg▲금산서당골=돈갈비 157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428개 ▲옥수한상사=요거트 388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L×6)200팩 ▲동원F&B제주=동원식품 2,711개 ▲삼다유통=삼다수 (2L×6)300팩 ▲서문식품=두부 1,248개 ▲신화유통=고추장등 150개 ▲싱싱부식=김치 30kg ▲아름다운라면봉사단=라면 30봉 ▲아라파파=빵 54봉 ▲이든이네=건밀치 9kg ▲자연드림연동점=빵 208봉 ▲자연드림이도점=빵 235봉 ▲제주보리촌=보리빵 1,180개 ▲진유통=뿌서뿌서 5,280봉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209봉 ▲행복나눔마트=비누 176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580,000	2,040,000
난치병환아후원	30,000	0
자원봉사후원	510,000	0
복지사업후원	495,000	6,402,329
푸드마켓후원	6,085,000	602,84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 개소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센터장 양예홍)가 지난달

22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사진> 도보조기구센터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 충북, 대전,

대구, 경남, 부산 등 1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보조기구센터는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스톱 맞춤형보조기구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마련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보조기구 정보제공 체계구축 △개인별특성 및 사후 관리에 소홀한 각종 보조기구 공적급여 제도에 적극적으로 투입돼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예정이다.

<문의: 753-9997>



함께해서 더 행복한 결혼식

제주 장애인합동결혼식이 지난달 2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지체·지적장애 부부 3쌍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식을 올렸다.



나눔국민대상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대표이사 오덕철)은 지난달 15일 ‘2015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

성안복지재단은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희망멘

토링’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보건복지부, KBS한국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수상 대상은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기업사회공헌 등 총 5개 부문이다.

청소년경제증권교실팀 전국 경제골든벨 ‘최강지역’ 선정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 ‘청소년경제증권교실 경제놀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양인영·임형권·강서현 학생이 ‘2015 전국 경제골든벨’에서 ‘최강 지역’ 팀상을 수상했다.<사진>

삼성증권이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가 주관해 지난달 18부터 이틀간 용인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회는 청소년경제증권교실 ‘경제놀이터’에서 배운 내

용을 바탕으로 경제지식을 뽐내는 자리다.

한편, ‘경제놀이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삼성증권 대학생 YAH(야호)봉사단을 파견해, 15회기에 걸쳐 지역아동들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네트워크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달 14일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네트워크 1차 모임을 진행했다.

네트워크모임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64시간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향상 교육 종료에 따른 후속 활동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15 제주지역 자활한마당 열려



‘2015 제주지역 자활한마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고은택) 주관으로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렸다.<사진>

자활사업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임직원, 사회복지관련단체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의 자활기능경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 자활사업 홍보 등

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자활사업 유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 15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높이는 초청공연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4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생산물품 및 서비스 상품의 전시·홍보와 저소득층 취업 정보 제공, 체험 및 판매 등을 위한 부스 운영 및 자활홍보 사진전 등도 열렸다.



‘2015 어린이 놀이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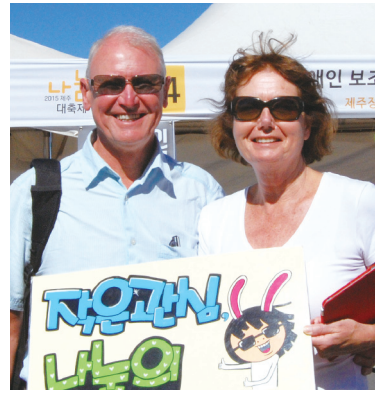
아동복지전문기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민회관에서 도내 위탁아동, 위탁부모,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어린이 놀이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사진>

‘어린이 놀이마당’은 도내 위탁아동 등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놀이체육, 우리가족 문패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됐다.

송명진(일반위탁가정) 위탁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다른 가정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며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어린이 놀이마당’은 지난 2008년부터 진행돼 올해 여덟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역사회의 많은 개인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 '나와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 2015 제주 나눔대축제가 지난달 9일 탐동 이마트 제주점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관람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으로 보는
'2015 제주 나눔 대축제'

나눔으로 사랑을 더해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나눔에 함께하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주 나눔 대축제가 지난달 9일 제주시 탐동에 위치한 이마트 제주점 야외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우리 모두는 행복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체험하며 더욱 따뜻한 제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 ① 500인분 비빔밥 나누기 - "삼촌 밥 먹영 감사"
- ② 아름다움을 나누는 '나누美'
- ③ 나눔버거 만들기 - '나누리야'
- ④ 도서 기부 및 교환 - '나눔도서관'
- 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수화공연
- ⑥ 나만의 '나눔배지' 만들기
- ⑦ 365일 36.5도 '나눔상자' 만들기
- ⑧ 전통놀이문화지원협의회 - '고누놀이'

사진제공 :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웰페어뉴스 전진호



소/식/마/당

'가족동행의 날' 행사 열어



약천사 자광원(원장 성원스님)은 지난달 25일 서귀포삼성여고(교장 김문태)와 함께하는 '가족동행의 날' 행사를 열었다.

삼성여고 교직원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자광원 이용자와 삼성여고의 유대관계증진과 자원봉사를 통한 장애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행사는 풍물패와 교악단의 공연, 올레8코스 함께 걷기 등으로 꾸며졌다.

가을 좋은 이웃과 주민나들이



아라종합 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7일 '2015 가을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나들이'를 실시했다.

제주은행 IT지원부, LH제주 지역본부, 우리마트 (신제주점)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155명, 아라복지관 자원봉사 연합회 등이 참여해, 제주 한화 아쿠아 플라넷 관람, 식사, 웅알스 공연관람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관람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달 17일 30여명의 이용자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을 관람했다.

이용자들이 원가정과 분리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관람은 이형섭복지재단과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 주체인 (주)펜타토닉 제주지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장애청소년 진로체험 도외 시설탐방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 (회장 박영재)는 장애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 13가정(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진로체험 도외 시설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고양시에 위치한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 SBS방송체험전, 강화도화문석체험학습 등을 방문해, 장애청소년들의 적성, 활동능력 파악과 작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노인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5일 서부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은빛어르신한마당 잔치'에 참가해 노인학대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르신한마당잔치에서 노인학대 관련 사진 전시와 홍보물 배포를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며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돕는 '기프트데이' 진행



장애인근로사업장 에코소랑(대표 박경숙)은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장애인 및 종사자 50여명이 마라도에서 기프트데이를 실시했다.

'기프트데이'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통해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들은 마라도를 걸으며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도외 여행 자립 재활 프로그램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2일부터 2박 3일간 서해안 일대와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도외여행자립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도외지역의 색다른 문화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욕구 충족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할수 있었으며, 삶의 행복지수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마라톤 단체참가로 조합원 단합 다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 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 임직원과 조합원은 지난달 11일 아름다운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조합원들의 단합을 다지고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올해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이도지역자활센터로 전환했으며,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 마을 선생님' 재능나눔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6일 신라면세점의 지원으로 '섬마을선생님'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봉사단과 함께 가파도와 우도에서 진행했다.

제주의료원, 신라면세점, 한울간병봉사회, 용머리에술단, 어우렁적십자봉사회, 레크레이션팀 50여명과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자원봉사단 발굴과 육성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가을맞이 국악한마당 개최



전원요양원(원장 황영집)은 지난달 4일 옥외 잔디광장에서 입소 어르신과 인근지역 경로당, 보은의 집 어르신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가을맞이 국악한마당 야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제주소리(안복자 대표) 국악단의 경기민요와 어린이들 민요를 비롯해 물허벅춤, 부채춤 등의 춤과 노래로 꾸며져, 소외층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자녀와 함께하는 오름탐방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 3일 다랑쉬오름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오름탐방'을 실시했다.

가을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부모들과 장애자녀, 비장애자녀 등 가족이 함께 오름을 오르면서 추억을 공유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또한 다른 장애인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류증진의 기회도 제공했다.

제주 프린지페스티벌 공연



온새미로 합창단(봉아름·우리동네·늘푸른·용담·이호 지역아동센터 연합)이 지난달 2일 열린 2015제주프린지페스티벌 개막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에서 온새미로 합창단은 '노래로 하나되는 온새미로' 공연을 펼쳤다. 온새미로 합창단은 지난 2009년 결성됐으며, 올해부터 '삼성 꿈 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론

통합사례관리자의 소진과 극복방안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중심의 실천적 관점은 통합사례관리의 긍정적 결과와 기대효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사례관리자의 소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례관리자의 소진은 집중력 장애, 에너지 고갈 등 신체적 증상, 성취감,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저하 등 정서적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사례관리자가 호소하고 있는 소진으로는 대상자의 서비스 거부 및 부정적 태도, 긍정적 변화에 대한 압박, 양가감정 및 이중구속적 태도 등이 있다. 대상자의 부정적,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사례관리자 역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 보호

는 대상자 주변의 기본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라포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 전이, 역전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 판단과 이에 대한 한계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 수, 기간, 가시적 성과 등의 사례부담과 소진 예방을 위한 환경적 여건의 미흡은 사례관리자의 소진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관리의 의미·가치 찾아야

통합사례관리현장에서 사례관리자의 소진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례관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자는 휴먼서비스 전문가로서,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사회복지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정립과 자기성찰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혜로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료와 공유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사례관련 지식을 확대하고 경험을 나누며,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한 여유를 찾으며, 스트레스 및 긴장관리 방법 등 자신에게 적합한 힐링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례관리자에 대한 신뢰이다. 이와 더불어 담당 사례수 조정, 사례관리 기간, 적절한 사례배정 및 관리 등 사례관리자가 사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상담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소진예방 및 힐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사례개입 환경여건 개선 중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는 사례관리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사례관리자에 대한 권한부여, 신변보호,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효과적인 사례개입이 가능한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서비스 전문가로서 실천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례관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칼럼

굴림추색(橘林秋色)의 계절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코발트빛 하늘 아래 소슬바람 스치면 가녀린 코스모스가 수줍은 듯 살랑이고, 억새꽃은 빛물결은 깨어지는 파도의 하얀 포말처럼 바람에 일렁인다. 갈색추억을 찾아 어디론가

떠남을 재촉하는 계절. 만추에 펼쳐지는 황금빛 열매가 길나서는 나그네의 시선을 붙든다.

예로부터 이 만추의 장관을 굴림추색(橘林秋色)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굴림추색은 영구춘화(瀛丘春花), 녹담만설(鹿潭晩雪)등과 더불어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로 꼽히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리.

진녹색 자태에 도도한 기개를 뽐내며 태풍과 장마, 한 여름 피약별을 견뎌내고 결실을 잉태한 감귤나무. 연둣빛 가지에 주저리 달린 황금빛 열매가 탐스럽다. 이방인에겐 이국적인 남국의 정취를 선사하고, 농부들에겐 고귀한 환금작물이 아니던가.

어찌 세월의 무게만을 탓하랴. 예전에 대학나무로 명성을 떨치던 감귤도 이제 처리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재배면적 확대와 과잉생산, 타지방 질 좋은 대체과일이 사시사철 출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재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있는 법. 무분별한 출하나 저급품 출하는 감귤산업의 쇠락을 재촉한다.

착색·비상품 감귤 선과장 특단조치 필요

현대의 참살이 시대에 소비자는 양보다 질, 가공되지 않는 원조적 참맛을 추구한다. 그래서 당도가 낮거나 착색을 한 저급품감귤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 고품질이 아니면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불량감귤이 시장을 교란하면 소비자의 외면은 당연하고, 출하한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가격하락은 명약관화한 일.

금년도 유통과정에서 착색감귤과 규격이 미달되는 비상품감귤이 어김없이 적발되고 있다. 대다수 농가가 정성을 다해 고품질생산을 위해 노력하는데,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를 가진 일부 상인들이 선량한 대다수 농민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다. 먹을거리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같지만 탈법은 망하는 길, 왜 소탐대실을 모르는가.

탈법의 해악에 수반되는 이 사회적 공분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 명단공개는 물론 선과장 폐쇄, 시장에서 영구격리 등 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근원을 제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량한 대다수를 보호하고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꿈꾸는 굴림추색의 풍요로운 농촌 어메니티(amenity)를 위하여.

기고

“저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오미숙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 18년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해오면서 공무원보다는 사회복지에 더 방점을 두고 일을 해오려고 노력했다. 2년동안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벗어나 외유를 즐기다, 다시 현장에 복귀한지 두 달이 넘었다. 두 달 동안 새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사회복지사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거다.

아라동에 온지 삼 일째 되던 날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나 000인데 무슨 무슨 서류를 관리사무소로 떼서 보내”라고 하신다.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라 전화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 하니 바로 육두문자가 튀어나온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는 생계비에 대해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받는 돈이지 영세민 돈이 아니다. 영세민 돈을 내놓으라”라 하신다. 이분 역시 한번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종일 전화를 하셔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알코올, 정신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하지만 그건 욕심일 뿐 이라는 것도 안다. 이 분야에 대한 알은 내 지식으로 이분들을 진심

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지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기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자 한다.

그동안 마음공부를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그동안 멀리하고 싶고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 모습이 내 안에 도 조금씩은 있다는 사실이다.

나 또한 알콜을 사랑하고, 문득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 있고, 치매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가족이 소중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이분들에게 가족처럼 ‘언제나 무조건 내편’이라는 든든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꿈을 길게 꾀다.

시설탐방

(72)제광원

아낌없는 정성으로 기쁨과 행복 가득한 요양원

'09년 소규모요양시설 개소... 어르신 질환과 생애주기 맞춘 프로그램 눈길

“덩기덕 쿵 더러러 더러러 덩기덕 쿵 덕” 흥겨운 장구소리가 들렸다. 어딘가 보니, 프로그램실이다.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장구를 두들긴다. 한 어르신은 흥을 감추지 않고 노래 한 소절을 뽑아낸다. 이에 질세라 원장도, 요양보호사도 덩달아 소고를 들고 노랫가락에 장단을 맞춘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제광원(원장 신성조)**에서 진행된 국악 프로그램 모습이다. 생기가 가득했다. 주변을 매우고 있는 풀썩의 향 덕분만은 아닐터다. 지난달 23일 어르신, 직원, 봉사자의 사랑으로 가득 한 집, 제광원을 찾아 요양원 운영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봤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유지재단 제광교회 부설 제광원은 2004년 첫 문을 열었다. 올해가 10주년이다. 제광원은 지역사회 내의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

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제공 기관이다. 입소 정원은 83명이며, 총 50여명의 직원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는 소규모 요양시설도 운영 중이다. 소규모 요양원에는 10명이 입소할 수 있고, 27명이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광원의 안내 책자 내 사업 소개에는 모두 ‘충분’이라는 꾸밈말이 붙어있다. 그 만큼 어르신을 위해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담겠다는 이야기다. 제광원은 어르신을 위한 의료서비스, 인지·신체기능 서비스, 사회 적응 서비스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어르신의 질환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제광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어르신, 휠체어를 탄 어르신, 외상 어르신 등을 구분해 그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문화접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악기를 직접 만지고 연주하는 음악프로그램, 고무밴드 등의 작은 재활도구를 이용해 진행되는 ‘소도구 재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원 운영에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으로 봉사단을 꼽을 수 있다. 제광원에는 모두 70여개의 봉사단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봉사단들은 다양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성조 원장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과 직원 복지를 더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으로 어린이집과 노인병원을 유치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내 연계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8)

나눔이 있어 즐거운 제주중학교

몽생이기자단 3기는 지난달 6일 나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중학교를 찾았다. 제주중학교(교장 진성필)에서는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6일부터 이틀간 ‘나눔이 있는 아침밥상’과 ‘나눔데이’를 운영했다.

먼저 6일에는 나눔이 있는 아침밥상으로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전교생이 먹을 주먹밥을 준비해 아침등굣길 마다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아침식사에 대한 인식조사와 그 필요성에 대해 캠페인을 벌였다.

7일에는 나눔데일로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각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옷과 운동화, 책 등을 기부 받았다. 이날 모아진 기부물품은 지난 9일 열린 제주 나눔대축제 ‘나눔장터’로 기부됐다. 나



눔장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주도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전 비용으로 사용된다. 나눔데이에 참여한 학생은 총 145명이며, 기부된 옷은 1300여벌, 책은 400여권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전체가 나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됐다.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계사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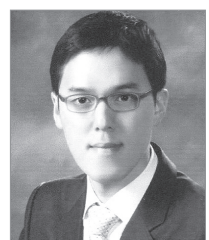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26

금연구역

담배를 피우고 싶은 흡연자들의 자유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비흡연자들의 권리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법(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을 정하여 위반시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은 도청, 시청, 정부청사, 법원 등을 비롯하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공항이나 여객부두의 대합실 및 승강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PC방 등이다(법 제9조 제4항 참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금연구역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의 실내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에서는 두 차례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다. 2014년도 고시(138호)에서



황인철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홍닥터

는 버스정류소(비가림 버스 승차대 1,500여개)와 공원 및 관광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공원, 휴양림, 미술관, 박물관, 폭포 등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38곳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8월 24일에는 금연구역 추가지정이 있었는데 도내 8곳의 비가림 택시 승차대가 금연구역이 되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

아울러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상 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여 적발시 범칙금을 내야한다.

제6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 추천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드높여 우리사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공적 및 활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명예로운 자원봉사자로서 영원히 기록됩니다.

| 추천대상 |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현재 활동 중인 개인, 타계한 자원봉사자)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 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인증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자

| 추천자격 |

제주도내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대표

| 제출서류 |

- 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나. 상반신 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다.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사진, 인쇄물 및 신문스크랩 등)

| 신청방법 |

- 가. 신청기간 : **2015. 11. 9 월 ~ 2015. 11. 27 금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전화번호 : (064)702-3783~4

|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 등재기념 순금배지 시상
- 등재기념패 증정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회 명예의 전당 대상자 없음

